

[로스쿨 합격기]

“기적”

업요한

- 계명대학교 법대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생



I. 들어가며

20살에 교내에서 운영하는 비사고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서재에서 만난 책이 고시계였습니다. 고시계에 나오는 합격수기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더욱 키워왔는데 이렇게 로스쿨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글이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 특히 지방대를 나와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수험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로스쿨 입시에 가장 관련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심신단련, 토익과 학점, LEET, 자기소개서와 면접, 합격의 기적 등의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II. 심신단련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스쿨 1기 진학

실패, 대학교졸업 후 군입대를 하여 큰 좌절감을 안고 있었지만, 전역 후의 수험 생활을 위해 남은 2년을 보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유산소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체내 근육량을 늘려서 비만을 벗어나고,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근력을 키웠습니다. 2년간의 꾸준한 운동은 신체를 아름답게 변화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주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회개하고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수험생활에 해가 되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1년간의 수험생활 동안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Ⅲ. 토익과 학점

1, 2월 두달간 8kg의 살을 빠지게 만든 토익시험입니다. 토익은 단기간에 시간을 집중하여 준비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시준비를 하듯이 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이 크겠지만, 토익은 그 중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점방지용으로 나오는 몇 개의 문제 빼고는 기출이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원에서도 기출을 변형한 대량의 문제를 통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을 많이 풀고 복습을 철저히 해서 파트5의 3초, 10초, 30초, 만점방지용 문제를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많이 나올때 2-3개인 만점방지용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시간을 아껴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도 기출이 변형, 반복되어 출제되므로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휘공부도 단어집보다는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암기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학습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성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성실성을 나타내므로 최대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Ⅳ. LEET(법학적성시험)

'LEET는 공부해도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LEET 또한 시험이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1기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군 복

무 동안 가장 알맞은 공부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과, 독해속도, 논리력,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LEET 출제방침에도 나와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LEET 고득점을 획득한 분의 그룹과외를 받으며 그분의 문제풀이 방법을 그대로 제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월~7월까지 꾸준한 배움을 통해 LEET의 출제 유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LEET 기출지문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읽으며 배경지식을 쌓고, 언어포스라는 속독프로그램을 통해 독해속도와 독해력을 키웠습니다. 논리력,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논술의 경우 주 2회의 작성을 통해 실전을 위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소의 균형잡힌 식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시험 한달 전부터는 MEET/DEET/LEET 기출문제 전부를 3번정도 반복해서 풀면서 철저히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답을 도출하고, 해결할 있는 문제와 스킵할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시간관리 등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LEET의 경우 1기 입시 때보다 20점 가량 상승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V.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LEET준비에 한창인 3월, 저는 지도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월부터는 집으로 신문을 구독하면서 면접대비를 하였고 법조인이 왜 되려고 하는지 ·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 어떤 법조인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서 작성해 나갔습니다. 면접의 경우, 과거에 면접 중 횡설수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LEET 수개월 전부터 계속 하였습니다. LEET 후에는 면접수업과 스터디를 한주에 6일 동안하면서 면접 당일 주어지는 10분의 준비시간과 답변시간에 맞춰서 논리적 사고의 틀을 갖추어 말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시 발음을 정확하고 자신감있게 하기 위하여 스피치학원도 두달간 다니며 면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말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피드백을 받고, 볼펜을 물고 발음하며, 발성법을 배움으로써 우렁차고 정확한 목소리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 합격의 기적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 1월말에만 해도 한곳은 후보 30번, 다른 곳은 불합격을 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인의 전화로 알게 되어 모집공고를 본 후 특별전형 추가모집을 통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일만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12년 12월초 발표 후 두달 동안 성경책을 읽고 기도만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왔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남대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요건에 해당 되었는데 마침 추가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감 마지막 날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일 아침에 신문을 사서 기차타고 면접보러 경산까지 갔습니다. 출제될만한 이슈가 한 개 있어서 내려가는 세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답할 내용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문제로 받은 제시문에는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준비한 제과업 중소기업적 협업종지정 문제가 나와서 10분의 준비시간 동안 기쁨의 눈물이 나올려고 하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토론면접을 하였는데 저의 반론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교수님을 보며 합격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산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월급을 월급일이면 그대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

오랜 수험생활 끝에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다니며 수십만원 상당의 책을 후원해주고 매주 보양식을 사준 친구 덕진이.

힘든 수험기간 동안 연락도 못하고 결혼식, 경조사도 못갔지만, 항상 먼저 연락주시고 응원해준 친구들과 지인들.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준 사랑의교회 지체들.

언어적 포텐을 터지게 해주신 국어 달인 천재훈남 박OO 선생님.

논리력, 사고력을 키워주신 새바치 최OO 선생님.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이 아파하는 저를 위해 친구와 가족처럼 따뜻한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신 서로연, 로이너스 회원님들.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꿈을 이어 나가게 해주신 영남대학교.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던 20대를 뒤로 하고 3년의 과정 멀고 험난하겠지만, 세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에서 쓰임받는 작은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